

### 우리 앞에 놓인 밀고 갈 짐

드르륵, 늘었던 쇠줄자가 통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인생을 보는 것 같다. 밀고 갈 짐이 종류가 다르게 내 앞에 놓일 때마다 그 짐이 얼마나 긴지, 언제까지 줄자를 늘이며 재야하는지를 생각하며 쇠줄을 잡아 늘이기에 바빴다. 그러나 놀랍게도 쇠줄자를 놓을 때가 오고 줄자를 놓는 순간만큼은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하지만, 쇠줄자를 늘이고 있는 동안에는 줄통이 비어서 가뻍더라는 것을 나중에 쇠줄자를 놓고 나서야 발견하였다.

힘들게 하는 우리 앞의 짐이 은총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까. 그러나 맞다. 밀고 갈 짐이 있는 날이 영적으로는 복되다. 교회는 그 원리를 알기에 봉사라는 코드를 마련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우리 앞의 짐을 밀기 위해 협동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의 맑음을 유지하는데 줄자를 놓으면 어느새 안으로 말려들어 가고 서서히 속이 답답해진다.

줄자를 늘이고 있는 동안에는 버거워서 하느님을 자주 부르게 되고 성서를 들추는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시간만 건디면 미래가 보장된다 해도 고달픈 일이지만,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기다리며 희망을 둘 때 수시로 찾아드는 두려움을 기도 아니고는 물리치기가 어려운 법이다.

나는 놀랍게도 가장 외부적으로 평안하고 살기가 좋을 때 내적으로는 불평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길게 뽑은 쇠줄자의 길이가 기도의 길이였다가 그 줄을 놓는 순간 줄자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길은 간결해졌는데 속은 답답하고 밖으로 기운을 내밀지 않으면 그 기운은 자기 안을 친다.

다시 줄을 꺼내 다른 사람의 짐을 밀어주고 주기적으로 속을 비울 때 웃음이 찾아드는 것을 터득하고 나는 오지랖을 편다.

삶은 항상 가변적이어서 출렁거리기 마련이고 한번 맛본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두 번째로 황홀할 만큼 가벼운 여유를 만났다. 나는 그때 바로 단맛에 쓴맛을 섞기 위해 장애 자반을 내 삶에 받아들였다. 옳았다. 끝없이 나누어도 모자라는 그 반에서 난 일주일에 한 번 텅 비워지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한 곳에서는 그들에게 나누어줄 것을 모으고 그곳에서는 나누어주며 균형을 맞춘다. 나는 하느님의 도구, 쟁반이다. 엎어주면 나르고 가져다주라고 하면 심부름하는 쟁반이다.

삶이 바쁜 중에 잠시 고요를 챙겨야지 지나치게 고요하면 기억에 밀어 넣어둔 감정이 들고 올라온다. 은총으로 가려졌다고 본성에 누적된 기억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삶의 기록은 언제나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편안함에는 쉽게 안착하지만 길들면 기도의 생활을 되찾는 데는 은총이 개입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 인생은 공평하다. 어려울 때는 주님의 날개 안에서 안온함을 느끼며 맘을 닦는데, 자유롭게 기운을 펼칠 때가 오면 날개 밖으로 나가 눈을 버려온다. 나무의 꽃도 고통 중에 향기가 진하고 개체 수가 많은 반면, 물 잘 주고 살기 편하면 꽃대를 울리지 않는다.

떨건 가깝건 죽음이란 짐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 줄자는 쉬지 않고 들락거릴 것이고 은혜는 그 틈을 타고 빈자리를 채울 것이니까.

< 문화홍보분과 위원, 1구역 5반 오정순 알비나 >

#### ♣ 환경 개선 봉헌금 (\*목표액: 3억원)

환경개선 봉헌금 ( 6 / 28 현재 )			
박 안드레아	100,000	박 스테파노	100,000
총 누 계		163,899,000 원	

#### ♣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성물 봉헌금 ( 6 / 28 현재 )	
총 누 계	87,650,000원 / 359명
*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목		감사헌금 ( 6 / 28 현재 )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38,685,000	권 그라시아	100,000	정 돈보스코	50,000	총 세대수	3,820
주일 봉헌금	10,752,650	백 아네스	200,000	연령회 준우승 상금	200,000	총 납부세대	1,164
교황주일 2차	8,059,000	박 루카	10,000			지난주 납부세대	16
성소 후원금(8건)	150,000	합 계: 560,000원			지난주 납부율(%)	30.5%	